감상문

김대식 교수님의 인터뷰

202035248 컴퓨터공학과 최윤

최근 AI를 활용한 그림 생성을 적극 권장하는 한 전문가의 영상을 보게 되었다. 영상은 AI가 예술의 민주화를 이끌고, 누구나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게 돕는 획기적인 도구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예술 분야에서 AI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그 영상이 마치 예술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영상에서 강조된 '효율성'과 '접근성', 즉 몇 개의 키워드 입력만으로 '그럴듯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예술의 진보일까?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단순히 '결과물'을 찍어내는 공정이 아니다. 우리가 한 편의 그림 앞에서 감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되었느냐 때문만이 아니라, 그 그림에 담긴 작가의 '영혼', 즉 그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흔적을 보기 때문이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이러한 과정이 철저히 거세되어 있다. 그것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조합일 뿐, 그 안에는 어떠한 주관적 경험이나 고뇌도 담겨 있지 않다.

영상은 AI가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자동 피아노 연주 기능이 나왔으니 누구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예술가는 단순히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메시지를 시각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이다.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능력이 예술적 소양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AI는 결국 내적 동기 없이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는 도구일 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AI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윤리적 문제이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기술 발전의 과도기적 현상' 정도로 치부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수많은 예술가들의 피와 땀이 담긴 창작물을 무단으로 착취하는 행위이다.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이미지가 사실은 수많은 원작자들의 스타일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창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AI가 특정 분야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상에서처럼 AI 이미지 생성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이 미래 예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 예견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기술은 결국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 하며, 창의성의 본질 자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전히 서툰 붓질이라도 그 안에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를 '예술'이라 믿는다. 영상을 보고 난 지금, 그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